

소리꾼 국창 권삼득(權三得) 추모제 완주군,구억리,재실에서 성대히 봉행

지난 11월 7일 조선 후기 현종 때 최고의 소리꾼으로 이름을 떨친 권삼득(權三得, 본명 권정) 선조의 높은 예술의 정신과 열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제가 후손 권경택(35세) 추진위원장 및 관계 기관의 예술 문화 관계자 그리고 전주.완주종친회(회장 권봉철)와 마을 주민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 예술회관에서 봉행되었다.

이날 권삼득(權三得, 본명 권정) 선조의 추모제 추진 권경택(35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유회대 완주군수 그리고 전주.완주종친회(회장 권봉철) 회원과 마을주민 등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권삼득 선조의 불굴의 예술 정신을 우리 가문의 큰 자람이자 한국 전통문화의 뿌리임이다. 우리 후손들이 뜻을 이어받아 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하였다.

이어 전주.완주 종친회 권봉철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 추진에 수고하신 권경택(35세) 추진위원장과 완주군 관계자 및 예술인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권삼득 선조님은 비록 양반의 신분으로 소리를 업으로 삼아 온갖 어려움과 편견을 겪었지만 그 분의 소리와 정신은 오늘날까지 우리 후손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 쉬며 전통 예술 문화로 남아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우리 종친회도 선생의 열을 잊지 않고 종친과 화합하여 전통 예술 계승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비가비 명창 권삼득(權三得, 본명 권정)은 사람과 새소리, 짐승 소리까지 흉내 낼 만큼 천부적인 재능을 지녀 삼득(三得)이라는 이름을 붙여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선생은 조선시대 양반 집안의 후손으로서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베풀어 사회적 편견과 제약을 극복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광대이다.

양반 집안의 마을에서 덕석말이(도당)까지 당하는 수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소리꾼의 길을 굽히지 않아 오늘날의 조선 후기의 양반 출신 광대로 전설적인 소리꾼으로 전해오고 있다.

이렇듯 한평생 소리에만 전념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1841년(헌종 7년) 향년 70세로 생을 마감하니 임금께서 호조 참판 및 정경부인 칭호를 하사하여 현재 배나무정 오차 함묘에 영면하고 계시다. 전주시에서는 소리꾼 권삼득 길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그의 열을 기리고 있다. 추모제는 제향 의식에 이어 지역 명창들의 참여와 공연으로 참석한 관계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1시간 동안 권삼득 일대기 재연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완주군과 지역 문화 예술 관계자들은 권삼득 소리꾼의 불굴의 예술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매년 명창 대회를 통해 소리꾼을 발굴하고 있으며, 매년 추모제를 통해 그의 정신을 지역 문화 유산으로 이어가고 있다.

전주, 완주종친회 권영춘 총무이사

추밀공파 정헌공계 도사공 추계향사 거행



추밀공파 정헌공계 도사공(都事公, 휘 諱: 필중必中, 23세)의 추계향사가 지난 11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화리에서 많은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도사공은 추밀공(樞密公, 10세), 정헌공(正獻公, 14세),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17세), 남강공(南岡公, 21세)계로 남강공의 5째 아들인 충정공(忠貞公, 휘 諱 翊俠) 석당(石塘)의 7형제 중 둘째 아들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빛나라, 대한민국 - See You 2105〉행사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1월 15일, 광복 80년을 마무리하며 〈빛나라, 대한민국 - See You 2105〉행사 인사말에서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이 자유와 민주, 번영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이 80년 전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해서 애쓰신 애국지사과 순국선열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드론쇼를 보면서 기술발전을 늘 생각합니다. 10년 후에는 드론쇼가 아닌 더 놀라운 무언가가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기술발전 나라발전에 앞장서서 함께 걸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희망합니다.”라고 말했다.

권광택 경북도의원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이 지난 10월 28일 정명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한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경북도의 안전, 보건·복지, 저출생 및 지방소멸, 고등교육 등을 소관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대표 발의한 주요 조례로는 경북의 강점을 살려 한의약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도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경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를 비롯해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한 ‘경북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형대학의 안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경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



권행완 편집국장



지치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권행완 편집국장

환화리의 임향조이기도 하다. 도사공의 후손들은 도사공의 조부인 남강공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청주지방 유림의 공의로 1710년(숙종 36년) 창건된 백목서원(白鹿書院)에서 유림과 더불어 남강공의 위패를 모셔왔다. 그러던 중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에 훼철된 백목서원을 광복 후 유림과 도사공 후손들이 협력하여 복원하였다. 금년 추계향사는 지역 유림들과 경향 각지에서 모인 남강공 후손들이 도사공 종친회의 후원으로 거행하였다.

권영식 도사공 종친회장

동정

▲ 경산시의회 권중석 의원(별장공파 38世)은 지난 11월 5일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권중석 의원은 경산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경북의 4대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경산시 의정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경산시 발전과 지방의정 발전에도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번에 큰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아울러 11월 30일에는 둘째 아들 혼사도 예정되어 있어 권의원은 올해 경사가 겹쳐 경산시민과 지인들로부터 축하와 칭송을 받고 있다.

국민기자뉴스 권성욱 취재부장

▲ 권영민(54) 중장이 제50대 공군교육사령관에 취임했다. 권 신임 교육사령관은 지휘관의 상징인 부대기를 인수받은 후 “사령관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국민

이 신뢰하는 첨단 정예 공군 양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권 교육사령관은 1994년 임관해 제10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 권영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이 최근 열린 ‘제1회 동래구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권영원 의원은 동래구의회 의원이자 소상공인연합회 동래구지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동래구 소상공인의 성장과 권의 보호를 위해 정책 제안, 조례 개정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현재 동래구의회 의원이자 소상공인연합회 동래구지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권준하 신익산화물터미널 대표(81)가 원광대학교에 발전기금 5억원을 등산장학금으로 기부했다. 국내 최초로 유엔대응신탁을 도입한 방식이다. 전북 익산 출신인 권준하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

를 졸업한 뒤 자동차 관련 사업과 펀드 투자로 자산을 일궜다. 2013년 부부가 나란히 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터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기부에 나섰고 펀드 수익을 활용한 기부 모델을 국내에 정착시키며 ‘펀드기부 개척자’로 불린다. 권준하 대표 부부는 2022년 선친의 호를 따 ‘미산나눔기금’을 조성해 미래세대 교육과 위기 가정 지원, 익산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꾸준히 돕고 있다. 2024 사랑의열매 대상 공헌장을 부부가 수상하기도 했다.

▲ 권영세 교수가 ‘제75차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초록상을 수상했다. 권영세 교수는 인하대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센터장이

다. 권 교수는 병원 소속 소아청소년과 손재준 교수가 제1저자로, 권 교수가 책임저자로 이름을 올린 ‘청소년 기립성 자율신경장애(Orthostatic Autonomic Disorders in Adolescents)’라는 연구로 상을 받았다.

▲ 권형일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가 학계와 산업계의 폭넓은 신뢰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스포츠포츠산업경영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권형일

교수는 중앙대에서 체육교육 및 스포츠산업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꾸준히 기여해 왔으며, 특히 중앙대 국제제장을 역임하며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 문화융복합단장이다.

▲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이 11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디자인·건축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헌정패(Plaque of Honor)’를 수상했다. 명예헌정패는 오랜 기간 디자인 산업 및 공공디자인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상징성이 높은 상이다. 권 원장은 2023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자인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디자인 명예의 전당’(9대)에 헌액된 바 있다.

전문 골판지 제조 기업



대양그룹 회장 권혁홍